



☁ 내 주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면..

내가 피해자의 주변 동료라면...

- 피해자를 믿어주세요.
-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세요.
- 괜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난은 하지 마세요.
- 행위자를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 분노와 고통을 표현하도록 용기를 주세요.
-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행위자(가해자)의 주변 동료라면...

- 옹호하거나 감싸지 마세요.
- 사과, 반성의 의지를 보일 때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위로, 변명한다고 행위를 경시하지 마세요.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 책임을 줄이려 하지 마세요.
- 피해자의 심정이 되어보도록 도와주세요.
-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 함께 책임질 부분이 없는지 고민해보세요.

<http://cukgcc2.byus.net>

☁ 성희롱 예방지침

- 성희롱과 친밀감을 구분하세요.
-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표현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웃지 마세요.
-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반드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는 하지 마세요.
-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주세요.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세요.
- 술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마십니다.

성폭력 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니콜스관 124호
홈페이지 : <http://cukgcc2.byus.net>
e-mail : cukgcc@catholic.ac.kr (일반문의)
counsel@catholic.ac.kr (이메일상담)
전화 : 02-2164-4640
open : 월·금 9:00 - 17:00
화·수·목 9:00 - 19:00

내가 성희롱 가해자라고?



아차! 하는 순간, 나도 성희롱 가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가톨릭대학교 성폭력상담소

? 혹시, 이런 농담해본 적 있나요?

“여학생이 많으니까 강의실이 화사하고 좋다”

“여자들은 몸매가 이뻐야돼!”

“너 얼굴값하게 생겼다~”

? 데이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적 있나요?

➡ 언어적 성희롱

? “여자가 나긋나긋해야지”, “난 영계가 좋더라”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은요?

? 후배에게 술따르기를 강요하고 춤파트너를 강요한 적이 있나요?

➡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 동아리방에 음란한 사진을 걸어놓거나 다함께 쓰는 컴퓨터 배경화면에 포르노 사진을 깔아놓은 적이 있나요?

? 상대를 아래위로 훑어보거나 특정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적 있나요?

➡ 시각적 성희롱

? 동의하지 않은 애무, 쓰다듬기, 안마하기 등의 신체접촉을 한적 있나요?

?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나요?

➡ 신체적 성희롱

“이는 모두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등

언어적 · 신체적 · 정신적 ·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톨릭대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중 -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Q 남자들끼리만 있을 때도 야한 얘기를 하면 안되나요?

A 야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쁜건 아니죠. 남자들만의 이야기로 다른 성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결론짓지 마세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생기는 다른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문제인 것 같아요.

Q 후배가 나보고 성희롱했다고 당장 사과하라고 하는데... 난 내 잘못을 모르겠어요.

A 성희롱에 대해 공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네요. 우선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세요. “야~ 농담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별일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네가 불쾌하다니 미안한 한데... 그건 성희롱은 아니야”, “스킨십은 남자가 리드하는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제 성희롱과 Sensitivity에 대해 공부해보세요.

Q 지나가는 여자보고 예쁘다는게 죄야? 점수매기는 건 표현의 방식이지~

A 그 표현의 방식이 누군가를 괴롭게 만든답니다. 외모를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듯 점수매기는 건 잘못된 표현방식이지요.

